취봉의 눈

제2회 중국사회책임투자포럼연례회의(The 2nd China SIF Annual Conference)를 보고…

지난 11월 14일 북경 Novotel호텔에서는 제2회 중국사회책임투자포럼연례회의(The 2nd China SIF Annual Conference)가 열렸다. 2011년 발족한 중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보다 4년 늦게 시작했지만 ASrIA와 CDP를 설립한 Tessa Tennant나 Calvert의 창립 회장인 Wayne Silby 등의 지원 아래 벌써 두 번째의 국제회의를 주최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회의를 공동 주관한 Syntao의 Guo Peiyuan(郭沛源) 대표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11월 13일 오후 3시20분 출발을 앞두고 나는 12일 저녁에야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13일 내내 비자 문제를 푸느라 하루 내내 동분서주하다가 밤 11시20분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회의가 열리는 북경의 NOVOTEL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14일 새벽 2시였다. 간단한 샤워를 하고 지친 몸을 쉬었다.

아침 7시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하고 나는 발표 자료를 프린트하려고 호텔의 Business Center를 찾아가 내 이메일을 열려고 했으나 열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글은 중국 정부로부터 금지된 사이트였다. 오늘 발표 자료를 보아야 할 텐데 걱정하며 Guo Peiyuan을 만나 행사 일정과 발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내가 준비한 것은 책임투자가 녹색성장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막상 내 세션을 주재하는 Tracy Cai를 만났더니 SIF가 SR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SIF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더 이상 메일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 안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9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다. 공동 주최측인 證券時報(Securities Times)의 張志勇 부사장의 개회사기 있고 영국 녹색투자은행 비상임이사인 Tessa Tennant 여사, 중국개발은행 연구원 부원장인 黃剑輝, Climate Group의 중화지역 총재인 吳昌華여사의 강연이 각각 진행되었다.

이어 내가 속한 세션이 시작되었다. 이 세션의 주제는 “녹색성장을 위한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for green growth)”인데, Tracy를 주재자로 하고, Tessa와 Wayne, 그리고 吳昌華여사와 내가 참여하고 있었다. Tessa는 주로 책임투자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Wayne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녹색 투자에 어떻게 민간 투자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Delaware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SIF가 SR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SIF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나는 특히 신흥시장의 SIF는 SRI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정책 입안자들과 관여, 금융기관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SIF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KoSIF의 경험으로 국회를 통한 ESG 정보공개법안이나 국민연금 투자에 있어 ESG 고려를 장려하는 법안 등을 소개하였다. 중국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금융이 장책 결정의 신속성이나 일관성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세계화된 금융계의 기대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Climate Group의 吳총재는 NGO의 입장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확산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토론이 끝나고 점심 시간 안내가 나오기 직전 한 여고생이 무대에 올랐다. 그 학생은 중국의 환경이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후손들을 위해 중국이 환경 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정말 야무진 학생이었고, 중국의 앞날이 저런 학생들 때문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점심 시간에는 발표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맨 처음 ASrIA의 AIGCC(Asian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를 담당하는 Jackrit Watanatada씨가 소개를 하고 이어 내가 KoSIF와 CDP 한국위원회의 일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 중국기금보(中國基金報)의 편집장인 史月萍여사, 한겨레 경제연구소(HERI)의 박은경 연구원, 중국 환경 관련 씽크 탱크인 청정공기연맹(Clean Air Alliance of China, CAAC)의 Tonny Xie (解洪兴), Smith School of Enterprise and the Environment에서 좌초자산프로그램(Stranded Asset Programme)을 책임지고 있는 Ben Caldecott씨, 영국 공인회계사회(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의 기업보고부장인 Paul Cooper씨 등의 소개가 있은 후 주최측인 Guo Peiyan(郭沛源)이 Syntao와 중국SIF에 대해 소개하였다. 내 옆자리에 앉은 Tessa와는 몇 년 전 함께 강화도를 부부동반으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암이 발병하여 고생한다는 소리를 전해 듣다가 이번에 밝은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반가웠고 아시아 지역 SIF의 앞날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오후 시간에는 좌초자산과 투자 위험 등에 관한 토론과 청정 대기를 위한 책임투자라는 두 개의 세션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겨레경제연구소(HERI)가 주관하는 동아시아포럼 “East Aisa 30”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위원으로서 이번 선정 과정에 대한 좌담회에 참여해야 했다. HERI의 박은경 연구원이 주관하고 중국측 전문가위원인 Qian Xiaojun(錢小軍) 칭화대 교수와 Liu Xuezhi(劉學之) 북경화공대학 교수 두 분께서 중국 기업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는 한국 기업 선정 과정 특히 정성적 평가와 negative screening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선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HERI가 중국과 일본에 각각 상응하는 파트너를 잡아 East Asia 30 행사를 한중일 3국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녁에는 주최측에서 저녁을 사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더니 우리의 올레길 같은 후통이라는 오래된 골목으로 데려갔다. 좋은 음식이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CSR과 SRI에 관심 있는 중국 젊은이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배는 한참 고픈데 고구마와 만두 몇 개로 배를 채우고 30여명에 달하는 2-30대 젊은이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Tracy의 사회로 Tessa, Wayne, 그리고 나를 대상으로 그들이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주로 농촌 지역의 마이크로크레딧에 직접 종사하거나 그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었다. 주로 Wayne과 Tessa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나에게는 어떤 여자분이 문화가 중국과 비슷한 한국의 책임투자에 대해 서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문하였다. 나는 세계화된 금융업의 특징에 비추어 문화적 차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융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투자(그들은 SRI를 사회적 투자로 부르기를 좋아했다.)에 대한 나의 입장을 묻길래 나는 “사회책임투자운동은 결국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사회운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책임투자운동가라고 불리고 싶다. 이런 운동가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부자로서 투자 원칙과 행태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직접 돈을 운용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돈은 없지만 대의명분에 찬성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는 부류이다. 아마 나는 후자에 속할 것이다. 어쨌든 사회책임투자운동은 돈 있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 사회책임투자운동가이다.”고 말해 주었다. 나중에 Calvert의 Wayne회장은 나의 이 말에 감동했다고 나를 격려해주었다.

밤 10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와 잠을 자려니 너무 배가 고팠다. 마침 모임에 같이 갔던 호주에서 온 사업가 John O’Brien이 자지 않고 있길래 함께 나와 오리고기와 맥주로 주린 배를 채우고 12시경 잠자리에 들었다.

11월 15일 귀국하는 날이다. 내 비행기는 19시라서 시내 구경이나 할까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나오다가 Tessa와 Jackrit을 만났다. Tessa의 의견에 따라 외출을 미루고 우리 셋은 아시아 SIF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9시에 시작하여 10시30분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SIF들 간의 Network 조직 결성, 공동회원제 도입, 아시아 펀드 labeling 제도 도입, 각국 SIF 연례 총회의 순환 공동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Tessa는 자신이 좀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 봄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Tessa 등을 공항으로 보내고 나는 Peiyuan과 그의 두 살짜리 아들, 그리고 Wayne과 가까운 식당으로 가 점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Wayne은 Impact Investing에 대해 책을 쓸 의향을 밝히길래 나는 한국어 번역권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문제는 아직 한 줄도 쓰지 않아 언제 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쨌든 즐거운 작별 점심을 하고 나는 王府井의 쇼핑가를 둘러보았다. 먼저 유명한 동인당 (同仁堂) 약국을 가보았는데 예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손님도 많아 보였다. 이어 몇 군데 백화점을 살펴보았지만 마땅히 살 것도 없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포기하고 일찍 공항으로 가기로 했다. 3시30분 택시를 잡았는데 북경의 교통 사정도 서울 못지 않게 좋지 않았다. 더구나 운전기사도 초보여서 우여곡절 끝에 정상보다 20분 정도 늦게 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을 마치고 남은 시간 남은 위완화로 맥주 두 잔을 비우며 시간을 때우다가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에 내린 시간은 10시 20분. 집에 오니 12시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가 전에 없이 정겨워 보였다.